방글라데시 불교, 10년째 끝나지 않는 아픔

2012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해킹 개정 오인으로 불교 겨냥
가해자 후속조치 10년째 요연
법원 미온적 태도 비판 들끓어

박영빈 객원기자


2012년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훼손된 불상들.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 바자르 지구의 라무마을에 사는 불교도들에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집단 테러를 가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 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심판에 큰 진전이 없었고, 방글라데시 불교계는 여전히 아픔을 겪고 있다. 10월 14일 'UCA 뉴스'와 '더 데일리 스타' 등 외신들은 방글라데시 불교의 아물지 않는 상처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012년 9월 29일,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극단주의자 단체는 라무지구의 한 불교도 청년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모욕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 후 극단주의자들이 지역 불교공동체에 대해 집단 테러와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더 데일리 스타'는 경찰 측의 조사를 인용해 "SNS에 공유되던 사진은 포토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교도 청년의 SNS 계정 역시 해킹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당시 테러로 라무지구에서만 19개 사찰이 방화 등으로 파손됐고, 26가구의 불교도 가정이 약탈과 폭행을 당했다. 치타공 지구에서도 불교사원과 힌두교 사원을 겨냥한 기물파손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방글라데시 정부는 파손된 건물과 가옥을 재건했고, 이듬해엔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 와제드의 후원하에 여러 불교사원들이 중창됐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무지구에서 당시 피해를 입었던 프라갸난다 스님은 "사건은 10년 전에 일어났지만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슬람교도들의 편을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라무지구의 불교단체들은 지난 9월 29일, 테러피해 10주기를 추모하는 평화행진을 진행하고 정부에 정의를 요구했다. 프라갸난다 스님은 "우리에게 진전이 없다. 정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파리둘 알람 지방검사는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피해자의 많은 이웃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한 확증적인 증언들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법원에 따르면 해당 테러 건에 관하여 신원이 불분명한 1,500명 이상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총 19건의 형사사건이 신고 됐으며, 이중 378명이 기소됐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이후 18건의 사건에서 1,020명을 기소했으나, 해결된 것은 현재 단 1건이다.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는 현재 방글라데시 사회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이미 라무지구 법원은 직무유기라는 지역사회의 청원을 받은 대법원의 권고로 재판부를 한차례 재구성한 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건들이 법정에 계류되어 있다. 현지 언론들은 "지금 절차가 중단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무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는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촉구했다.

국제불교연맹, 아미달마의 날 컨퍼런스 성료

인도 노이다서 모디 총리주도로
영상 시사회·연구소 발표회 열려


'아비달마의 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패널들이 '아비달마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국제불교연맹(IBC)이 '아비달마의 날'을 맞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11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국제불교연맹이 주최한 아비달마의 날 기념 컨퍼런스 개최 소식을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도정부의 후원을 받아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국제불교연맹은 부처님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 어머니 마야부인을 만나 가르침을 설한 후 자신이 인간세계로 돌아온 날을 '아비달마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남방과 북방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설하신 가르침이 아비달마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현재 국제적으로 아비달마의 날은 남방달력으로 7월 보름이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불교연맹과 인도 가우탐 붓다 대학교는 국제 아비달마의 날 행사를 조직했으며, 등과 꽃 공양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의 주빈인 미얀마 시타구 국제불교학교 총장 아신 나니사라 사야도 스님은 "국제불교연맹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아비달마 연구에 대한 지식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아비달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과 사유이다"라고 아비달마 연찬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리랑카 대표 중 한 명인 와스카두웨 마힌다완사 스님은 "오늘 우리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하는 인도정부의 지원 아래 우리는 인도에서 불교가 다시 부흥하는 것을 목격 할 수 있다"며 인도정부가 불교의 부흥을 위해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날 주요행사로는 '아비달마의 중요성'에 대한 패널토론과 연구서 '인도 아비달마 연구의 최근 발전' 출간발표회가 있었다. 또한 국제불교연맹에서 진행 중인 룸비니 프로젝트에 대한 짧은 영상 시사회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국제불교연맹은 국제기구 및 기관, 국가 및 지역 연합, 본말사를 포함한 320개의 사찰 및 불자 회원들이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부탄, 제 4회 국제 금강승불교 컨퍼런스 개최

10월 1~4일 '불교의 현대성' 주제
37개국서 300명 이상 참석 성황


팀푸에서 개최된 제 4회 국제 금강승불교 컨퍼런스에 참석한 참가자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티베트 불교문화권으로 불교 가르침을 전통문화의 중심에 두고 있는 불교국가 부탄에서 제4회 국제 금강승불교(金剛乘, Vajrayana Buddhism)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로 3년간 연기됐다가 열린 것이다. 10월 12일 국제불교뉴스 전문포털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부탄에서 열린 이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에 대해 보도했다.

부탄의 수도 팀푸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간 열린 국제 금강승불교 컨퍼런스는 '불교의 현대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금강승 불교란 후기대승불교의 한 맥인 밀교의 다른 이름으로 힌두교나 다른 인도종교의 밀교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름이다. 이 컨퍼런스는 부탄불교의 총본산인 슝 다창(Zhung Dratshang) 사원과 부탄학-GNH 센터(CBS)가 공동 주최했으며, 인도 국제불교연맹의 지원을 받았다.

CBS는 부탄정부로부터 부탄 고유의 개발사상인 국민총행복(GNH)과 관련된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하고 조정하는 국립기관이다. GNH는 불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도 주목받는 사상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부탄을 포함해 37개국에서 300여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참석했다. 토의되고 발표된 내용은 주제 맞게 21세기 삶에서 금강승불교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다뤄지는 분야들 역시 사회, 환경,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상황들이 예시로 다뤄졌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AI와 디지털 기술, 생태와 환경에서 불교가 어떻게 사회적인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여성수행자와 관련된 주제들도 심도 깊게 다뤄졌다.

CBS의 다쇼 카르마 우라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의 중요성에 대해 "금강승불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며 인간사회와 그 전개를 수행의 영감과 통찰력의 원천으로서 활용한다"며 금강승불교는 그 어떤 가르침들 보다 현대사회에 적합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날 여러 문제에 대해 불교는 그 고유의 방향과 관점을 제시하고, 그런만큼 다양한 분야와 방향에 복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며 불교가 결코 현대에 떨어진 가르침이 아니라고 전했다.

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하는 슝 다창 사원측도 "불교에서는 본질적으로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지혜와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의 수행을 가르친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것들을 세계화하고, 또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라며 불교의 지혜로 코로나19의 위험한 시국을 넘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별히 165m의 세계 최장 서예 기록을 보유자인 인도 출신의 서예가 잠양 도르제 차키샤르의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컨퍼런스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적인 활동도 불교수행의 일환으로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본성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泰, 하안거 회향…천신·아수라 행렬 재현

10월 10일, 대중공양 등 봉행


재가신자들의 공양을 받는 스님들. 사진출처=파타야메일

지난 10월 12일 태국 지역 일간지 '파타야 메일'은 파타야의 하안거 회향법회 봉행 소식을 전했다. 파타야 지구의 불자들과 스님들은 하안거 해제를 기념하여 대중공양과 화려한 행렬로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10월 10일 태국 촌부리 주 왓 차이몽콜 사원의 부주지인 프라 흐루라차산 소폰 스님은 남파타야 사원에서 하안거 해제일인 '아욱 판사'와 부처님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 어머니 마야부인을 만나 가르침을 설한 후 다시금 인도의 샹캬샤를 통해 중생들에게 돌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탁 밧 데보'의 법회와 행렬을 이끌었다.

이 두 날은 태국에서 전통적으로 재가신자들이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날로 여겨지며, 하안거 해제에 맞추어 동시에 기념한다. 태국에서는 이날 부처님께서 지상으로 돌아오실 때 천신과 아수라들의 시봉을 받으며 내려오셨다는 전설에 따라 각각 천신과 아수라로 분장한 불자들의 행렬을 봉행한다.

먼저 천신으로 분장한 불자들은 사찰에 모인 대중들의 번영와 축복을 기원하며 사람들의 머리 위로 쌀과 꽃을 뿌렸다. 아수라로 분장한 불자들은 보시금을 받아갔다. 마지막으로 하안거를 마치고 나온 대중스님들이 행렬을 뒤따랐다.

불자들은 스님들께 식사, 사탕, 과일, 향 등을 공양 올렸다. 스님들은 공양을 받은 후 법문을 하고 발우에 물을 담아 대중들에게 뿌리며 건강과 축복을 기원했다. 이날 동일한 행렬과 행사들이 41개 지역 사찰에서도 봉행됐다.

이날 올려진 공양물은 코코넛 잎으로 감싼 찰밥인 '카오 땀 룩 요니'라는 음식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인간계로 돌아오셨을 때 먼발치에 있던 불자들이 부처님의 발우 안에 공양물을 넣기 위해 밥을 둥글게 말아 던졌다는 것에서 유래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